

	보도참고자료	
배포일시	2018. 8.3.(금) / 총 3매(본문 3)	
국토교통부	·주택정책과장 김영국, 사무관 최병길, 박진홍 ·☎ (044) 201-3324 / 1599-0001 (콜센터) ·공공주택추진단장 김정희, 사무관 하태아 ·☎ (044) 201-4526 / 1599-0001 (콜센터)	
서울특별시	·주택정책과장 송호재, 팀장 최현정 ·☎ (02) 2133-7012	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국토부서울시,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협력 강화 **국토부-서울시 차관급 핵심 정책협의 T/F 회의 개최**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서울시(시장 박원순)는 8.3일 국토부·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,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 -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,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.
-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, 이를 위해 함께 협력·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·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,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·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.
 - 국토부-서울시(자치구 포함)-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(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포함)하여 불법 청약·전매·거래행위,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- 특히 국토부가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과열지역을 중심으로, 주택 거래신고내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미성년자, 다수 거래자, up-down 계약 의심거래건 등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.
-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.
- 8.2대책 등 既시행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한국감정원이 구청의 예정액 통지를 지원 중으로, 서울수도 구청이 정확한 부담금 예정액을 산정하여 통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하였고,
- 정비사업 조합비리 근절 및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기존 정책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-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「시장 관리 협의체」를 구성하여 격주로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.

핵심 정책협의 T/F 국토부 1차관 - 서울시 행정2부시장

시장관리 협의체	구 분	총괄 실·국	공동TF장	구성
	국토부	주택토지실	주택정책관	주택정책과장, 주거복지정책과장, 주택정비과장 및 기타 유관부서
	서울시	주택건축국	주택건축국장	주택정책과장, 도시계획과장, 재생정책과장 및 기타 유관부서

-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-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「주거복지로드맵」과 「신혼부부·청년 주거 지원방안」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(10만호)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(2.5만호 내외)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, 유휴부지,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하였다.

- 국토부도 서울시가 지난 2월 「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」 및 「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」을 통해 발표한 임대주택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세권청년주택 및 사회주택의 제도 개선과 기금·보증지원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□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정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의 기반을 마련한 만큼,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서민·실수요자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일관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의견을 모았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최병길 사무관(☎ 044-201-33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